

1970년~1979년(성장기 초기)

(1) 양돈산업 성장기

1960년대를 침체정체기라고 본다면 1970년대는 성장기 초기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사육두수는 1970년에 1,126,000두, 1976년에 1,953,000두, 1979년에는 무려 2,843,000두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일본지역 돼지고기 수출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 무렵부터 대기업이 양돈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기업의 상업자본이 투자되면서 사육규모도 전·기업화로 급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 시기부터 국·도립 종축장에서 생산 공급되는 종자돈은 수요에 크게 미달했고, 따라서 점차 기업농장의 종돈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종돈수입을 허용하는 등 직·간접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종돈사업

종돈수입은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때는 연간 1,588두가 수입되었고 그 후에는 국내 양돈경기의 흐름에 따라 수입희망량이 변화하여 경기가 좋은 해에는 수입두수가 늘어났고 불황기에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종돈혈통등록사업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장에서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내 최초로 능력검정사업에 착수하였다.

양돈농가에서는 양돈업체의 우수비육돈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순종비육에서 1대교잡종 및 3원교잡종등 잡종강세를 이용한 교잡종 생산이 크게 보급되었다. 이때 모계 품종으로는 주로 랜드레이스, 요크셔, 등 백색계통의 다산종이 이용되었고, 부계로는 햄프셔, 듀록 등 유색계통이 이용되었다. 대규모 농장에는 배합사료이용이 정착되었으며 따라서 완전 배합사료 생산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격동기의 양돈산업에는 호·불황이 따르는 바, 1972년, 1974년, 1976년, 1979년에 양돈불황을 맞았으며, 1979년도의 불황은 역사에 전무후무한 극심한 것이었다.

(자료출처 : 한국축산연감 1989~90 농수축산신문)